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	담 당 자	김 영 대 사무관 (02-2100-2672)

제 목 : 금융위원장, 「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」 개최

- ◇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중인 중개업체, 펀딩 성공기업과 금융위·유관기관들이 모여
-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개진

1. 간담회 개요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6.10.20일(목) 「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을 위한 업계간담회」를 개최하여, 기업 성공사례 및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

◀ 간담회 개요 ▶

- 일시/장소 : 2016.10.20(목) 15:30 ~ 16:3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주요 참석자(16명)
- 금융위원장, 금융위(자본국장), 금감원(부원장보)
 - (성공기업 : 3곳) 인디스토리(영화 '건기왕'), 하이리움산업, 아우름플래닛
 - (중개업자 : 7곳) IBK투자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KTB투자증권, 오픈트레이드, 와디즈, 인크
 - (관계기관 : 3곳) 한국성장금융, 기업은행,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

2.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

-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출범이후, 약 8개월간(~10.19) 5,500여명의 투자자가 180건의 펀딩에 참가하고 이 중 84건이 펀딩에 성공 (47%, 138억원)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
- 펀딩 성공이후 후속투자 유치, 해외수출계약 체결 등 크라우드펀딩의 후광효과를 누리는 다양한 사례도 탄생
- * 전업 8개사·겸업 6개사등 총 14개 중개업자가 기업발굴을 위해 활동중
-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착시키면서, 하나의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다하겠음
- 광고규제 완화·KSM 시장 개설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,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한 우수 기업의 참여를 확대
- 기타 문화콘텐츠 분야 자금지원 강화, 중개업자 업무부담 완화 등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
-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, 정부당국, 정책금융기관 및 중개업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
-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운영중인 기업은행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적극적인 기업 발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
-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포함한 중개업자에도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
- 현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성장금융(K-크라우드펀드)과 기업은행(마중물펀드 등)에도 보다 적극적인 Seeding 투자 참여를 요청

3. 주요 성공기업 사례

① 인디스토리는 영화 '워낭소리'를 배급하고, 영화 '티끌모아 로맨스', '최악의 하루' 및 최근 영화 '견기왕'(10.20 개봉)을 제작한 영화사

○ '견기왕'은 펀딩 개시 2시간만에 목표(1억원)의 90%를 달성한 성공적인 문화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로,

○ 모집 자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, 크라우드펀딩 성공 자체가 작품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 홍보 창구로 활용되었다고 밝힘

② 한편, 지난 '크라우드펀딩 6개월 현장간담회(7.28)'에 참석했던 '하이리움산업'¹⁾과 '아우름플래닛'²⁾은 이번에 재차 참석

1) 광주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입주한 액화수소 사업화 벤처기업(3억원 펀딩)

2) 모바일·PC에서 웹 정보를 저장하는 하이라이터 서비스 'Liner' 운영(0.6억원)

○ 크라우드펀딩이 자금 조달뿐 아니라 회사홍보에도 기여하였고,

○ 펀딩 성공 이후 몇 개월간 벤처캐피탈을 통해 후속 자금을 유치하고, 회사의 주요 지표가 몇 배 성장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이 기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힘

4. 향후 계획

□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, 11월초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

※ 별첨 : '금융위원장 모두 발언'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